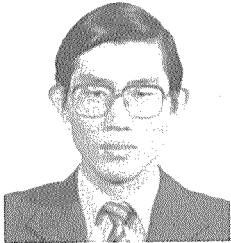


# 輸出産業으로서의 電子産業 점검



鄭 匡 培

韓國産業經濟技術研究院  
産業技術 3 室 研究員

첨단산업제품의  
수출비중이 높아지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미국의 산업과 심한 마찰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려되는  
것은 몇 개 품목에 한정되어 대기업의  
주도하에 대량생산 체제를 갖춘 후 집중  
수출하게 될 우리나라의 수출 패턴이  
수출대상국으로부터 수입규제를 받을  
때 국내에 미치는 충격이 크게  
나타나는 점이다.

올해 우리나라 電子製品 輸出이 우리나라 輸出의 牽引車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84년 上半期 電子製品 輸出增加率이 前年同期對比 53.2%의 높은 신장률을 보였으며 이는 同期間內的 우리나라 全體 輸出增加率 26.7%를 2배나 초과한 것이다. 이와 같은 輸出增加率は 世界景氣 - 특히 美國景氣 - 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본격적인 好況期를 맞이하여 그 동안 쌓아올린 國內電子業體의 國際競爭力 向上을 바탕으로 컬러 TV, 半導體, 컴퓨터 주변장치 등의 급속한 증가에 기인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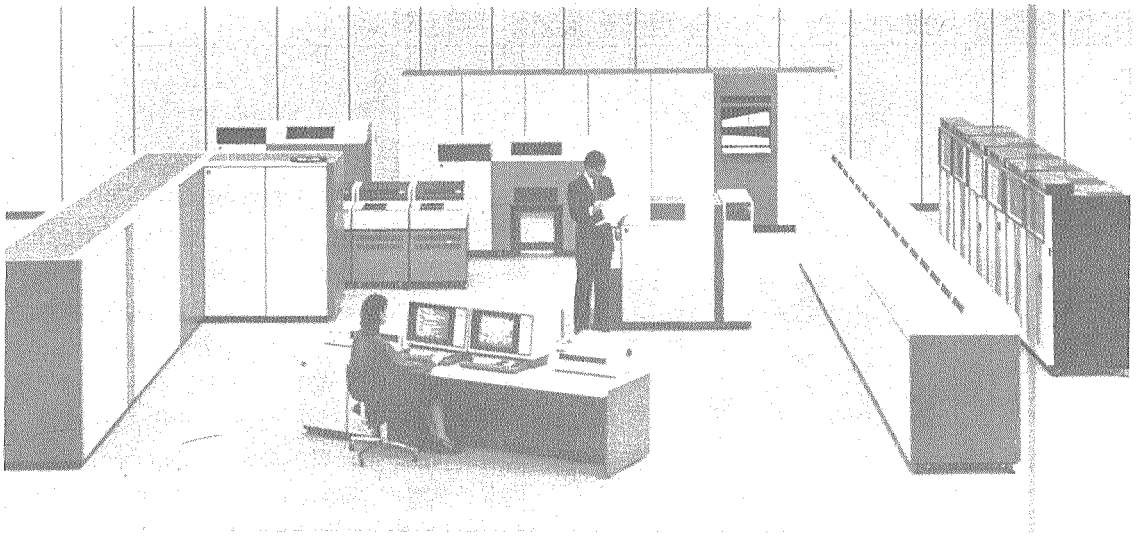
전자제품 수출의 회복기인 작년도에도 전자제품 수출액은 前년에 비해 38.9% 증가하여 29億 7,700萬弗을 기록하였다.

輸出對象 國別로 살펴보면, 美國에 가장 많이 수출하여 전자제품 전체 수출액의 60.5%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은 日本으로 9.7%를 차지하여 對美輸出額과는 큰 격차가 있다. 즉 美國의 景氣變化가 우리나라 電子製品 輸出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臺灣, 싱가포르, 홍콩 등 東아시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各國의 82년도 對美輸出 比重은 日本이 35.3%를 유지하고 싱가포르와 홍콩이 40%선에 이르며 韓國과 臺灣은 50%선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1 참조). 뿐만 아니라 對美輸出에서 주목되는 것은 1981~82년도의 世界景氣 沈滯期에 東아시아國家들의 電子製品 全體輸出額은 감소하거나 담보상태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對美 電子製品輸出額은 前년에 비해 모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이 對美依存도가 높아진 것은

첫째, 東아시아국가들의 電子製品 國際競爭力이 他地域 國家에 비해 높아져서 美國이 輸入先을 東아시아국가로 돌리고 있는 점과

둘째, 東아시아의 수출측면에서 보면 美國이 外의 유럽, 일본 등 동아시아의 輸出對象國은



과당경쟁은 필연적으로 가격인하를 재촉하여 채산성을 악화시킨다.

東아시아國家들의 電子製品 輸出과 對美輸出  
表 1

단위 : 百萬弗, %

國名	年度	1980			1981			1982		
		總輸出A	對美輸出B	B/A(%)	總輸出A	對美輸出B	B/A	總輸出A	對美輸出B	B/A
日 本		19,036	5,343	28.1	23,358	7,278	31.2	23,221	8,199	35.3
韓 國		2,006	726	36.2	2,219	891	40.2	2,170	1,104	50.8
台 灣		2,957	1,295	43.4	3,629	1,856	51.1	2,894	1,907	65.8
홍 콩		2,661	685	25.7	2,637	793	30.1	2,483	1,023	41.2
싱 가 폴		2,804	1,335	47.6	3,121	1,170	37.5	3,131	1,257	40.1

資料 : 「美國의 電子·電氣製品 輸入統計」 1984. 2, 韓國電子工業振興會

産業構造面에서 동아시아국가와 競合關係가 있는 품목이 많아 東아시아국가의 輸出品에 대해 輸入規制를 하고 있어 동아시아국가는 이들 국가에 輸出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對美偏重은 한 나라의 景氣變化나 輸入規制 등 경제 및 정치적 변수에 의해 自國의 産業에 큰 영향을 미쳐서 輸出需要의 不安定으로 정상적인 生産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逆으로 생각하면 不況期에도 계속 輸出이 증가되고 있는 巨大한 市場인 美國의 動向을 직시하여 彈力性있게 대처해 나간다면 好況期에는 높은 輸出增加勢를 이룰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台灣과 우리나라는 美國市場을 잘 활용하여 好況期에는 美國市場에 電子製品 輸出을 급증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韓國과 台灣사이에는 美國市場에 침투하는 패턴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먼

저 輸出商品 構造面에서 차이점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家庭用電子機器나 半導體分野에서 높은 신장률을 보인 반면 台灣은 産業用 電子機器와 産業用 部品分野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表 2 참조)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完製品에서부터 部品까지 一貫 生産體制가 갖추어지고 大量生産을 할 수 있는 기존 제품분야에서 優위를 지킨 반면 台灣은 통신기기, 컴퓨터 및 주변장치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골고루 여러 가지 산업용 전자제품 분야에서 優위를 갖추고 있다.

台灣의 이러한 輸出構造를 가진 요인들을 살펴보면, 台灣은 첨단분야에 빨리 진출하여 好況期에 들어서는 1983년부터 그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台灣의 主要 伸張品目은 TV나 오디오 범주를 넘어서 高度化된 메모리칩, 통신기기, 컴퓨터 및 그 주변장치로서 새로운 需要를 맞아

表 2 韓國·台灣의 電子製品 輸出實績

단위: 百萬弗, %

내용별	1982		1983		전년대비증가율 (83 / 82)	
	대 만	한 국	대 만	한 국	대 만	한 국
전 자 제 품 전 체	3,462	2,144	4,231	2,976	22.2	38.8
가 정 용 전 자 기 기	1,439	906	1,532	1,196	6.5	32.0
(컬 러 TV)	133	185	269	389	101.1	110.4
산 업 용 전 자 기 기	227	207	641	432	182.3	108.6
(통 신 기 기)	185	120	428	267	130.8	122.0
(컴 퓨 터·주 변 장 치)	23	36	166	110	612.5	205.5
(계 측 제 어 기 기)	18	20	45	49	158.3	144.1
전 자 부 품	1,794	1,031	2,056	1,348	14.6	30.8
(IC 및 반 도 체)	376	623	431	812	14.8	30.3
(튜 브·디 스플 레 이)	135	7	159	17	17.8	131.4
(컴 퓨 터 용 부 품)	136	27	217	30	59.6	14.6
(통 신 용 부 품)	55	-	105	1	90.4	-

資料 { 韓國: 「83 電子電氣工業統計」 (韓國電子工業振興會)

{ 台灣: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註) 台灣의 實績値는 대만화폐단위 NTS를 환율 40.18로 달러 환산한 것임.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는 품목이다. 이같이 첨단산업에의 빠른 진출의 배경에는 그 동안의 台灣의 部品産業의 低邊擴大와 外國人 直接投資業體의 역할을 도외시할 수 없다. 台灣의 電子業體는 海外 現地生産業體 및 판매회사와 台灣內의 外國人 直接投資 業體로부터 外國의 産業 및 技術情報를 빨리 입수하여 成長性있는 품목을 골라 台灣의 일부 값싼 中小企業의 電子部品을 활용하여 값싸게 OEM베이스로 다국적 기업에 수출하고 있다. 部品の 價格競爭力 확보는 첨단진출의 필수요건이다. 國內에서의 部品生産은 産業用機器 등 尖端産業에 進出하는데 國際競爭力 強化를 원활히 하여주고 新製品 開發能力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世界經濟가 好況期를 맞이하여 새로운 첨단분야에 뛰어들고 싶어도 部品 등 原資材部門에서 가격이 맞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台灣의 첨단산업 진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部品生産은 우리나라보다 品目面에서 多樣할 뿐만 아니라 生産 및 輸出額面에서도 많다. 한편 우리나라는 半導體를 많이 수출하고 있고 반도체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兩國의 部品 輸出構造를 보면 半導體輸出이 총부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3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58.8%로, 台灣은 20.9%로 나타나 우리나라가 3배가량 높은

비중을 보였다. 우리나라에서는 通信機器用 部品이나 컴퓨터用 部品輸出은 전체부품수출의 1%도 안될 정도로 극히 빈약한 데 비해 대만에서는 통신기기용 부품의 전체 부품수출액의 5%, 컴퓨터용 부품이 1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部品構造는 機器의 國際競爭力을 강화시켜 주는 데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수탁가공 형태로 생산되고 있는 半導體를 제외하면 첨단산업이나 기타 成長部門의 進出에 필요한 部品生産部門에서 매우 취약하다.

이와 같은 취약점은 있지만 우리나라의 電子製品 輸出에서 우위로 내세울 수 있는 품목은 部品에서 完製品 機器까지 一貫生産을 할 수 있고 大量生産體制를 갖춘 품목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分野가 家庭用 電子機器 部門이다. 大量生産體制를 갖춘 품목은 재벌그룹을 배경으로 하는 대기업에 의해서 생산된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輸出市場에서의 強點은 大財閥企業이 完製品機器와 수직계열화될 수 있는 부품생산까지 장악함으로써 一貫體制를 이루어 海外市場에서 輸出單價를 낮출 수 있는 점이다. 한 예로 컬러 TV만 보더라도 完製品에서부터 主要 核心部品에 이르기까지 同一 財閥그룹내에 갖추어 있어서 장치산업인 核心部品の 生産稼働率을 一定水準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自社內의 部品을

많이 活用하기 위해서 完製品을 공격적으로 輸出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최근 재벌그룹이 電子産業을 80年代 成長産業으로 인식하고 대거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적극적인 판매 공세가 더욱 加速化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輸出體制는 우리나라 輸出에의 強點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나 신축성있게 운용하지 못할 경우 弱點으로 表出될 가능성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즉 이같은 공격적일 수밖에 없는 販賣擴大戰은 각그룹이 각각 품목별, 市場別 分圈化하여 世界市場에서 이루어진다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기존 제품을 중심으로 맞부딪치면 과당경쟁을 서슴치 않을 것이다. 과당경쟁은 필연적으로 價格引下를 재촉하여 產産성을 악화시킨다. 수출채산성이 악화됨에 따라서 전자업체는 기술개발에 힘을 쏟을 여유가 점차 줄어들며 이는 곧 품질저하로 이어져서 韓國의 電子製品은 만년 中質·싸구려제품으로의 오명을 벗어날 길이 없고 수출경쟁력이 날로 떨어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어려워지는 무역환경 속에서 輸出對象國으로부터 輸入制限을 받아 수출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戰後 70年代初에 이르기까지 世界貿易은 自由貿易을 근간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이는 세계경제의 安定成長을 가져왔다. 그러나 70年代의 두 차례의 石油波動 이후 世界貿易을 주도하던 先進國 등의 실질소득 감소로 세계무역은 크게 위축되었다. 美國과 EC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게 되어 貿易의 균형을 위해 도입된 變動換率體制도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여 기축통화인 달러貨의 下落만 재촉하여 世界經濟는 더욱 혼조만 떨 뿐이었다. 80년대 들어와서 美國은 통화긴축과 高金利로 美國經濟를 재구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高金利에 의한 달러貨의 高評價는 美國商品의 價格競爭力을 더욱 弱化시켜 國際收支赤字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악화된 수출환경 속에서도 東아시아국가들은 과감한 投資와 저렴한 勞動力을 바탕으로 수출지향형 개발전략을 세워 지속적인 伸張을 꾀하였다. 이들 제품은 종전의 경공업제품에서 벗어나서 점차 高度化되어 先進國의 固有業

種으로 여기고 있는 重化學工業 일부까지 침투되어 국제수지 적자와 실업문제를 안고 있는 美國 등 선진국에서는 中進國 規制論이 대두하게 되었다. 美國은 東아시아국가의 輸出攻勢와 더불어 高金利에 의한 貿易收支赤字 累積加重 때문에 인위적인 保護主義를 강화하고 있다.

일련의 최근 보호주의 경향은 과거에 보였던 사양산업 보호를 위해 一定期間, 特定種目에만 실시되었던 것과는 달리 기존산업과 尖端産業을 보호하기 위해서 長期的으로 실시될 뿐만 아니라 産業政策 등 産業界 全體를 不公正한 것으로 규탄하고 있는 점이다. 앞으로 尖端産業製品의 輸出比重이 높아지는 우리나라의 産業構造의 高度化는 美國의 産業과 심한 마찰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려되는 것은 몇 개 품목에 한정되어 大企業의 주도하에 大量生産體制를 갖춘 후 集中輸出하게 될 우리나라의 輸出패턴이 輸出對象國으로부터 輸入規制를 받을 때 國內에 미치는 충격이 크게 나타나는 점이다. 올해 덤핑제조를 받았던 컬러TV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의 對美輸出 컬러TV가 전체 電子製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이지만 台灣은 6%로 우리나라의 약 반에 가깝다. 이것은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수입규제에서 오는 충격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台灣은 우리나라보다 輸出構造가 훨씬 多樣化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악화되어 가는 保護主義傾向 속에서 輸入規制에 의한 國內 衝擊을 줄이면서 전자산업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強點으로 볼 수 있는 一貫 生産에 의한 大量生産體制를 기본으로 하되 多樣한 輸出品目 構造를 갖추어야 하겠다. 종래처럼 몇몇 종목에 한정하여 여러 업체가 너도 나도 참여함으로써 해외에서 과당경쟁에 의해 集中豪雨식으로 퍼부어 輸入規制를 받아 과잉생산 문제가 발생되어 生産資金이 유희시설에 심히 편중되어 資金의 非效率性만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業界는 輸出對象國의 경기변화, 새로운 상품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기존제품에만 집착하지 말고 成長性있는 輸出品目을 신속히 발견하거나 개발하여 세계경제의 浮沈에 탄력성있게 대처해나아가는 輸出轉換能力의 배양이 필요하다.